

고시기획

www.gosiplan.com

NEWS

9-10월 종합반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박문각은 무·조·권 20만원! 선착순 200명! 초대박 할인
 9월 박문각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문과가 합격을 돕습니다.
9월 6일(월) 대개강 7/9급 기본이론 종합반 20만원

지방직 9급 “이제는 면접시험이다”

17개 시·도 합격선 발표 완료 ... 지역별 면접시험 준비 집중

【 2021년 지방직 9급 · 교육청 9급 면접시험 일정 】					
지역	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지역	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서울시	8월16일~9월6일	9월10일	충청남도	8월4~13일	완료
경기도	완료	7월31일	충청북도	완료	완료
인천시	8월10~18일	완료	전라남도	7월12일~8월20일	완료
대전시	7월 29일~8월3일	완료	전라북도	완료	완료
대구시	8월17~25일	완료	경상남도	완료	8월7일
광주시	완료	완료	경상북도	8월2~27일	완료
부산시	8월10~17일	완료	제주도	완료	완료
울산시	8월10~11일	완료	세종시	7월21~30일	완료
강원도	7월26일~8월3일	완료			

2021년 지방직 9급·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모두 마무리 됐다.

각 지역별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지방직 9급·교육청 9급 채용은 이제 면접시험만을 앞두고 있다.

면접시험은 각 시험별, 지역별로 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직 등 일부 직렬에 한해 면접시험을 앞당겨 치르는 등 시험 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각 지역별 시험 진행 상황은?

서울시는 지방직 9급 일반행정 등 면접시험을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면접시험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며 각 직렬별 및 응시번호에 따라 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9월1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은 각 시·군별 면접시험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청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7월31일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8월18일에 공고 될 계획이다.

인천시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8월10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다.

인천시 교육청 9급 공무원 채용은 면접시험을 종료했으며 8월2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대전시도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7월 29일~8월3일에 치른다.

이와 함께 대구시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8월17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시험별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지방직 9급 7월30일 ▲교육청 9급 8월2일이다.

부산시 지방직 9급 행정직, 세무직 등 면접시험을 8월10일부터 17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다.

울산시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8월10일부터 이틀간 울산시청 본관에서 치러진다.

강원도는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8월3일까지 실시한다.

충청남도는 간호, 보건진료, 보건 이외의 직렬 면접시험을 8월4일부터 13일까지 치를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필기시험 합격자 총 1천429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8월20일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교육청 9급 면접시험은 8월7일에 치러진다.

경상북도는 간호, 보건직 외 전 직렬에 대한 면접시험을 8월2일부터 27일까지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실시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9급 일반행정 등 면접시험을 7월30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세종시이다.

면접시험을 앞둔 응시생들은 지원동기, 자기소개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예상답안을 준비하고 응시 지역의 주요 정책과 비전 등도 상세히 살펴야 한다.

수험 관계자는 “자신이 응시한 지역, 직렬별로 예상 질문과 답안을 상세히 준비해야 한다”며 “답변 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진실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제시형 질문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고 내용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사회 이슈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문각 ▶ NETclass
 • LIVE
스트리밍 강의 & 캠퍼스 학습관
오픈기념무료
 바로 듣고 바로 질문하고 바로 해결한다!
GMG 박문각

2022 공무원 시험 대비
박문각 교수T패스
 여러분이 원하던 바로 그 T패스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강의 수강 수료기간 내 100% 수강 완료 시 모든 강의를 수강
 3배수 제한 모든 강의를 3배수 수강
 노량진 실강 생방송 교수특강 등 오프라인 강의를 배우 수 있음
교수T패스(365일) 온라인강의
 심의 교수님 온라인강의 수강 365일 자유 수강 300여 수료
420,000원 할인 50%
GMG 박문각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2021 상반기 결산세일
7급 진과목 50%
초대박 할인
8월 30일까지 할인

수험서/자격증 전문 도서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
 9·7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임용 고시
 공인 중개사
 각종 자격증
 검색창에 **북스파** 로 검색해 보세요~!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2021년 지방직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인천시 212.3대 1로 '최고 경쟁률' 기록해

지역	2020년	2021년	지역	2020년	2021년	
충청남도	▲충청남도 149대 1 ▲전국 107대 1	84대 1	경상 북도	▲포항시 178대 1 ▲경주시 123대 1 ▲안동시 107대 1 ▲구미시 221대 1 ▲영주시 80대 1 ▲영천시 87대 1 ▲상주시 53대 1 ▲문경시 38대 1 ▲의성군 36대 1 ▲영양군 32대 1 ▲청도군 75대 1 ▲고령군 34대 1 ▲성주군 54대 1 ▲예천군 64대 1 ▲울진군 38대 1	▲경상북도 97.5대 1 ▲포항시 134대 1 ▲안동시 53대 1 ▲구미시 71대 1 ▲영천시 43대 1 ▲상주시 40대 1 ▲문경시 37대 1 ▲경산시 57대 1 ▲군위군 47대 1 ▲칠곡군 37대 1 ▲봉화군 47대 1	
제주도	-	93.7대 1		대구시	129.25대 1	126.42대 1
전라북도	267대 1	▲전북도 121대 1 ▲김제시 38대 1		광주시	77.87대 1	67대 1
전라남도	39.4대 1	37.3대 1				
울산시	139.8대 1	118대 1				
부산시	145.93대 1	129.27대 1				
대전시	47.36대 1	42.44대 1				
인천시	110.3대 1	212.3대 1				
세종시	119.5대 1	32.57대 1				
경기도	▲경기도 76.3대 1 ▲의왕시 83대 1	▲경기도 110.5대 1 ▲용인시 75.7대 1 ▲평택시 81.5대 1				

2021년 지방직 7급 공무원 일반행정 경쟁률 현황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충청남도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84대 1로 나타났다. 8명 선발예정인 671명이 출원한 것이다.

제주도 제5회 지방공무원 7급 일반행정 3명 선발에 281명이 출원해 경쟁률 93.7대 1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7급 일반행정 평균 경쟁률 79.5대 1로 10명 선발에 795명이 지원했다. 각 지역별 경쟁률은 ▲전북도 121대 1 ▲김제시 38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전라남도 7급 일반행정 모집에는 32명 선발예정인 총 1천194명이 출원해 평균 3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시 제3회 지방직 임용시험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7급 일반행정 118대 1 ▲7급 수의 15대 1 ▲9급 일반토목 2대 1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제2회 부산시 7급 일반행정직은 15명 모집예정인 1천939명이 출원해 129.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시는 49명 선발예정인 1천436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 29.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으며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42.44대 1로 나타났다.

2021년 광주시 7급 일반행정 15명 모집예정인 1천5명이 출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상북도 지방직 7급 일반행정 평균 경쟁률은 68.3대 1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경쟁률은 ▲경상북도 97.5대 1 ▲포항시 134대 1 ▲안동시 53대 1 ▲구미시 71대 1 ▲영천시 43대 1 ▲상주시 40대 1 ▲문경시 37대 1 ▲경산시 57대 1 ▲군위군 47대 1 ▲칠곡군 37대 1 ▲봉화군 47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 지방직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경기도 110.5대 1 ▲용인시 75.7대 1 ▲평택시 81.5대 1로 각각 나타났다.

2021년 인천시 지방직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212.3대 1이다. 3명 선발예정인 637명이 출원한 것이다.

세종시 지방직 7급 일반행정 7명 선발예정인 228명이 접수를 마쳐 경쟁률 32.57대 1로 나타났다.

2021년 대구시 지방직 7급 일반행정 경쟁률은 126.42대 1이다. 12명 모집예정인 1천517명이 출원했다.

99% 적중률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 공급



토즈, 르하임, 공부인, 디플레이스, 비허밍, 스테디고, 아카데미라운지, 어라운드, 영광독서실, 위넨, 지니24, 초심, 커피랑도서관, 포커스, 포텐, 플랜에이, 다올, 공간샘, 하우스터디, 화이트펜슬, 잇을 스파르타, 꿈꾸는공간, 이끌림, 빅스, 타임유, 시작, 프레쉬스터디카페 등 전국 2,000여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시데이터 기반

분석 문제 단계별 실시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은 지난 3월부터 공무원 합격예측의 99% 정확도를 자랑하는 모의고사 서비스를 박문각 남부, 종로, 강남 공무원 직영 학원과 학습관에 이은 제휴 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출제 위원급 75명의 박문각 공무원 교수진이 엄선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AI시스템이 분석하여 최신 유형의 적중 예상 문항을 추출한 후 6회 이상의 합격전략 연구소 검수를 거쳐 최종 출제된다.

본 모의고사는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를 3단계 구성으로 실시한다.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실전 감각 및 적응력이 극대화되기에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공무원 합격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다각적 학습 지원 기능 제공

이 외에도,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을 통하여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답안입력 ▲성적관리 ▲동영상 해설강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피드백 시

스템이 제공되며, 박문각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솔루션 AI확인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학습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99% 합격예측 적중률

체계적 합격 전략 가능

특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수강생이 선택한 직렬 별 최근 3개년 경쟁률 및 합격 커트라인을 반영하여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로 체계적인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목 및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자들과 성적을 비교하여 수험생의 명확한 위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문각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박문각 직영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토즈, 르하임,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프리미엄독서실, 영광독서실’ 등 제휴업체 지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확대 시행되는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통해 빠른 성적 향상과 실전 감각 체득을 통해 소망하는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 제휴 학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박문각 공무원

박혜선 역공국어

NEW 문법 쌍꺼풀이

I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본 교재

- 방대한 국어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주는' 가성비 갑 교재
- 중요한 부분을 쌍꺼풀이로 모아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재
- 기출문제까지 정리해 주는 문법 ALL IN ONE 교재

박혜선 편저 20,000원

노랑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합격보장 현장패스!

9급 종합반 **대개강!**

개강일 7월 5일 월 ~ 7월 12일 월 *순차개강

업계최초! 직렬 교수팀 개강!

전담팀 교수님들이 합격까지 책임집니다

합격할 때까지 현장강의와 올패스를 무제한 수강
말로만 합격 보장이 아닌, **“진짜 합격”**

일반행정직 4개의 전담팀

직렬별 전문 전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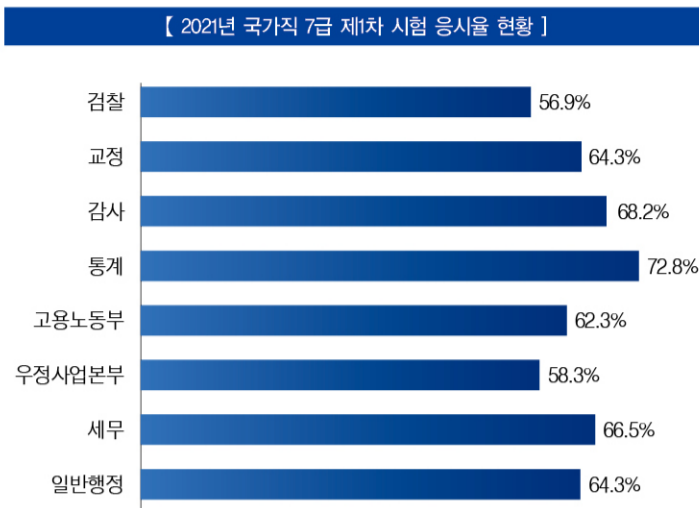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국가직 7급 제1차 시험 평균 응시율 '63.4%' 기록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제1차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이 발표됐다. 8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3만8천947명이 출원했고 2만4천723명이 시험에 응시해 평균

63.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7급 일반행정은 출원인원 1만4천810명 중 9천537명이 필기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64.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급 세무직은 접수인

원 3천371명 중 2천245명이 필기 시험에 응시해 66.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행정직 직렬별 응시율은 다음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58.3% ▲재경 63.2% ▲고용노동 62.3% ▲통계 72.8% ▲감사 68.2% ▲교정 64.3% ▲검찰 56.9%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필기 시험 기술직계 평균 응시율은 57.06%를 기록했다.

각 직렬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61.5% ▲전기 48.9% ▲일반토목 54.7% ▲건축 53.4% ▲전산개발 61.05% 등이다.

국가직 7급 채용은 8월18일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 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찰청 경쟁률 현황은?

평균 경쟁률 일반(남) 18.9대 1·(여) 24대 1

지역	일반(남)	일반(여)	지역	일반(남)	일반(여)
서울	16.8대 1	23.5대 1	강원	14.1대 1	19.9대 1
부산	25.8대 1	32대 1	충북	19.8대 1	29.6대 1
대구	39.3대 1	47대 1	충남	15.1대 1	18.8대 1
인천	20.8대 1	24대 1	전북	18대 1	23.5대 1
광주	38대 1	50.8대 1	전남	16.4대 1	18.6대 1
대전	27.7대 1	38.2대 1	경북	17.6대 1	20.3대 1
울산	33대 1	45.8대 1	경남	23.2대 1	25.2대 1
경기남부	18.9대 1	24.5대 1	제주	19.2대 1	27.1대 1
경기북부	17.4대 1	16.8대 1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경채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일반(남) 채용은 1천546명 선발 예정에 총 2만9천349명이 출원해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 16.8대 1 ▲부산 25.8대 1 ▲대구 39.3대 1 ▲인천 20.8대 1 ▲광주 38대 1 ▲대전 27.7대 1 ▲울산 33대 1 ▲경기남부 18.9대 1 ▲경기북부 17.4대 1 ▲강원 14.1대 1 ▲충북 19.8대 1 ▲충남 15.1대 1 ▲전북 18대 1 ▲전남 16.4대 1 ▲경북 17.6대 1 ▲경남 23.2대 1 ▲제주 19.2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참고로 418명을 모집하는 서울청에는 총 7천25명이 출원했으며 211명을 선발하는 경기남부청에는 4천명이 지원했다.

일반(여) 평균 경쟁률은 24.1대 1을 기록했다. 582명 모집에 총 1만4천66명이 접수를 마친 것이다.

각 지역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 23.5대 1 ▲부산 32대 1 ▲대구 47대 1 ▲인천 24대

1 ▲광주 50.8대 1 ▲대전 38.2대 1 ▲울산 45.8대 1 ▲경기남부 24.5대 1 ▲경기북부 16.8대 1 ▲강원 19.9대 1 ▲충북 29.6대 1 ▲충남 18.8대 1 ▲전북 23.5대 1 ▲전남 18.6대 1 ▲경북 20.3대 1 ▲경남 25.2대 1 ▲제주 27.1대 1이다.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변호사 3.6대 1 ▲공인회계사 0.4대 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11.9대 1 ▲안보수사 4.2대 1 ▲학대예방 11.6대 1 ▲재난사고 4.8대 1 ▲현장감식 4.6대 1 ▲의료사고 15.2대 1 ▲영상분석 1.4대 1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3.9대 1 ▲교통공학 8대 1 ▲법학 8.5대 1 ▲세무회계 13.6대 1 ▲경찰행정 9.2대 1이다.

한편 제2차 경찰공무원 시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8월21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27일 ▲신체·체력·적성검사 9월23~10월29일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8~12일 ▲면접시험 11월22~12월14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 지방직 7급 원서접수 실시 예정

2021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가 8월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번 채용을 통해 총 417명의 공무원을 선발 할 예정이다. 행정직군 채용인원은 242명으로 ▲일반행정 206명 ▲감사 1명

▲지방세 4명 ▲전산 20명(이상 일반 기준) 등이다. 기술직군 선발예정인원은 158명이다. 각 직렬별 채용인원은 ▲일반기계 8명 ▲일반전기 7명 ▲일반화공 3명 ▲보건 6명 ▲일반토목 16명 ▲건축 10명 ▲약무 31명

(이상 일반 기준) 등이다. 원서접수는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실시한다. 향후 채용일정은 ▲필기시험 10월16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1월17일 ▲인성검사 11월27일 ▲면접시험 12월7~17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29일이다.

전라북도 제3회 지방공무원 채용 '종료'

전라북도가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천19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전라북도 9급 일반행정 최종 합격자는 총 445명으로 각

시·군별 합격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37명 ▲전주시 63명 ▲군산시 29명 ▲익산시 46명 ▲정읍시 30명 ▲남원시 48명 ▲

김제시 69명 ▲완주군 16명 ▲진안군 11명 ▲무주군 12명 ▲장수군 10명 ▲임실군 19명 ▲순창군 12명 ▲고창군 33명 ▲부안군 10명 등이 최종 합격했다.

2022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 합격자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하는 박문각의 진짜 학습관리 "

성적관리 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	+	해설강의 명불허전 박문각 교수진의 알찬 무료 해설강의	+	합격예측 전국 응시생대비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합격 가능성 예측	+	오답노트 오답노트로 관리하는 과목별 약점 영역
--	---	---	---	--	---	-------------------------------------

*비문각공무원 스터디, 기숙인기반을 수강한 60명 중 40명 기준(2020년 국가직 필기/지방직 최종합격자)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시험
2021. 08. 22(일)
오전 10:00

- 일반행정
- 세무
- 교육행정
- 기술직

박문각 공무원

전강좌 무제한 수강에 캠퍼스, 환급까지!

2022

박문각 올패스 보기



공무원 올패스

올패스 4기 8월 18일(수) 마감 이후 **가격 인상!**

**8월 한 달만!
특별 할인 중!**

01 이벤트 ★

7급 1년 올패스
3개월 추가 제공

02 이벤트 ★

7급 평생 올패스
50만원 특별 할인



공무원 전과목
무제한 수강



매일 / 매주 / 매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업계
최초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박문각 캠퍼스

『2020-2021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 ④ 전라북도 선발인원 62명에서 135명으로 크게 늘어 '눈길'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마무리 됐다. 『고시기획』은 2020-2021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을 총 정리해본다.

【 2020-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 】

구분	선발예정인원		경쟁률		응시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라북도	2명	1명	23.5대 1	45대 1	46.8%	66.67%
전주시	17명	17명	15.88대 1	14.4대 1	71.9%	76.23%
군산시	11명	3명	12.73대 1	20.3대 1	77.1%	77.05%
익산시	4명	19명	24.5대 1	7.8대 1	76.5%	85.14%
정읍시	5명	21명	16.4대 1	4.5대 1	74.4%	80%
남원시	2명	15명	18.5대 1	5.7대 1	75.7%	94.12%
김제시	-	29명	-	8.2대 1	-	82.35%
완주군	5명	6명	15.2대 1	7.3대 1	77.6%	81.82%
진안군	1명	3명	13대 1	7대 1	76.9%	95.24%
무주군	2명	3명	10.5대 1	6.7대 1	66.7%	95%
장수군	3명	3명	17.67대 1	6대 1	73.6%	88.89%
임실군	2명	2명	18대 1	8대 1	72.2%	68.75%
순창군	1명	3명	16대 1	8대 1	62.5%	70.83%
고창군	3명	4명	11.67대 1	8.5대 1	68.6%	79.41%
부안군	4명	6명	14.5대 1	4.8대 1	67.2%	75.86%
소계	62명	135명	16.28대 1	10.81대 1	72.2%	81.02%

□ 선발인원 62명→135명으로 늘어

전라북도는 지난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62명을 선발 공고 했었다.

각 지역별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2명 ▲전주시 17명 ▲군산시 11명 ▲익산시 4명 ▲정읍시 5명 ▲남원시 2명 ▲완주군 5명 ▲진안군 1명 ▲무주군 2명 ▲장수군 3명 ▲임실군 2명 ▲순창군 1명 ▲고창군 3명 ▲부안군 4명을 각각 선발 공고 했다.

전주시가 17명 선발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으며 군산시가 11명, 정읍시와 완주군이 각각 5명 선발로 그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 올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선발인원은 135명으로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각 지역별 선발인원은 ▲전라북도 1명 ▲전주시 17명 ▲군산시 3명 ▲익산시 19명 ▲정읍시 21명 ▲남원시 15명 ▲김제시 29명 ▲완주군 6명 ▲진안군 3명 ▲무주군 3명 ▲장수군 3명 ▲임실군 2명 ▲순창군 3명 ▲고창군 4명 ▲부안군 6명을 각각 채용 할 예정이다.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난 지역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4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19명을 채용하며 김제시는 2020년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29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 경쟁률 16.28대 1→10.81대 1

2020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평균 경쟁률은 16.28대 1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4명 선발에 98명이 몰려 2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라북도가 2명 모집에 47명이 출원해 23.5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시·군별 경쟁률 현황은 ▲전주시 15.88대 1 ▲군산시 12.73대 1 ▲정읍시 16.4대 1 ▲남원시 18.5대 1 ▲완주군 15.2대 1 ▲진안군 13대 1 ▲무주군 10.5대 1 ▲장수군 17.67대 1 ▲임실군 18대 1 ▲순창군 16대 1 ▲고창군 11.67대 1 ▲부안군 14.5대 1 등으로 각각 나타난 바 있다.

참고로 각 지역별 출원인원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47명 ▲전주시 270명 ▲군산시 140명 ▲익산시 98명 ▲정읍시 82명 ▲남원시 37명 ▲완주군 76명 ▲진안군 13명 ▲무주군 21명 ▲장수군 53명 ▲임실군 36명 ▲순창군 16명 ▲고창군 35명 ▲부안군 58명 등이 접수를 마쳤다.

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평균 경쟁률은 10.81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16.28대 1보다 하락한 것이다.

우선 각 지역별 경쟁률 현황은 ▲전라북도 45대 1 ▲전주시 14.4대 1 ▲군산시 20.3대 1 ▲익산시 7.8대 1 ▲정읍시 4.5대 1 ▲남원시 5.7대 1 ▲김제시 8.2대 1 ▲완주군 7.3대 1 ▲진안군 7대 1 ▲무주군 6.7대 1 ▲장수군 6대 1 ▲임실군 8대 1 ▲순창군 8대 1 ▲고창군 8.5대 1 ▲부안군 4.8대 1로 각각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모집으로 1명 선발에 45명이 몰려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참고로 전년대비 경쟁률이 하락한 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2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7.8대 1로 하락했고 장수군도 2020년 17.67대 1에서 2021년 6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참고로 각 시·군별 출원인원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45명 ▲전주시 244명 ▲군산시 61명 ▲익산시 148명 ▲정읍시 95명 ▲남원시 85명 ▲김제시 238명 ▲완주군 44명 ▲진안군 21명 ▲무주군 20명 ▲장수군 18명 ▲임실군 16명 ▲순창군 24명 ▲고창군 34명 ▲부안군 29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 응시율 72.2% → 81.02%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72.2%로 나타났다.

출원인원 982명 중 70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각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46.8% ▲전주시 71.9% ▲군산시 77.1% ▲익산시 76.5% ▲정읍시 74.4% ▲남원시 75.7% ▲완주군 77.6% ▲진안군 76.9% ▲무주군 66.7% ▲장수군 73.6% ▲임실군 72.2% ▲순창군 62.5% ▲고창군 68.6% ▲부안군 67.2% 등으로 나타났었다.

참고로 시·군별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전라북도 22명 ▲전주시 194명 ▲군산시 108명 ▲익산시 75명 ▲정읍시 61명 ▲남원시 28명 ▲완주군 59명 ▲진안군 10명 ▲무주군 14명 ▲장수군 39명 ▲임실군 26명 ▲순창군 10명 ▲고창군 24명 ▲부안군 39명이 시험을 치렀다.

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81.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66.67% ▲전주시 76.23% ▲군산시 77.05% ▲익산시 85.14% ▲정읍시 80% ▲남원시 94.12% ▲김제시 82.35% ▲완주군 81.82% ▲진안군 95.24% ▲무주군 95% ▲장수군 88.89% ▲임실군 68.75% ▲순창군 70.83% ▲고창군 79.41% ▲부안군 75.86%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응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95.24%를 기록했으며 무주군이 응시율 95%로 그 뒤를 이었다.

참고로 올해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에는 접수인원 1천122명 중 909명이 시험을 치렀다.

각 시·군별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30명 ▲전주시 186명 ▲군산시 47명 ▲익산시 126명 ▲정읍시 76명 ▲남원시 80명 ▲김제시 196명 ▲완주군 36명 ▲진안군 20명 ▲무주군 19명 ▲장수군 16명 ▲임실군 11명 ▲순창군 17명 ▲고창군 27명 ▲부안군 22명이 필기시험을 치렀다.

□ 합격선

2020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305.01점 ▲전주시 358.09점(양성 344.89점) ▲군산시 351.61점(양성 338.74점) ▲익산시 355.16점 ▲정읍시 365.05점 ▲남원시 353.39점 ▲완주군 342.34점 ▲진안군 343.13점 ▲무주군 338.32점 ▲장수군 345.92점 ▲임실군 341.81점 ▲순창군 315.73점 ▲고창군 333.92점 ▲부안군 364.35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은 ▲전라북도 355.34점 ▲전주시 363.45점 ▲군산시 340.05점 ▲익산시 361.75점 ▲정읍시 333.82점 ▲남원시 345.33점 ▲김제시 355.33점 ▲완주군 334.91점 ▲진안군 356.48점 ▲무주군 354.48점 ▲장수군 330.09점 ▲임실군 342.32점 ▲순창군 337.40점 ▲고창군 343.24점 ▲부안군 306.22점을 각각 기록했다.

참고로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총 135명이다.

전라북도는 당초 올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공무원을 총 135명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각 지역별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1명 ▲전주시 17명 ▲군산시 3명 ▲익산시 19명 ▲정읍시 21명 ▲남원시 15명 ▲김제시 29명 ▲완주군 6명 ▲진안군 3명 ▲무주군 3명 ▲장수군 3명 ▲임실군 2명 ▲순창군 3명 ▲고창군 4명 ▲부안군 6명이 각각 시험에 합격했다.

박문각 공무원

바른 시작이 곧 합격이다!

7급 종합반 **대개강!**

개강일 7월 12일 월

더 강화된 강사진으로 합격의 확신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직렬에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학습 Care부터 생활 Care까지, "진짜관리"

노량진 박문각 최고의 7급 강사진 구성

신림동 5급 공채 1타 교수 신규 입성!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국어(A형) 기출문제 해설(7)

| 강세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9.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전신성(昏定晨省)이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 깊다.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므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이다.

- ①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③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④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출제영역] [독서] > 과학 > 인과 추론

[해설] 해당 내용을 맞히기 위해서는 인과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혼전신성, 예기, 곡례편'에 대한 이해는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
 ①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진다.
 ②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진다.
 ③ 방바닥이 뜨거워지니 방 전체에 복사열에 의해 전달되어진다.
 이때, ②와 ③의 사이의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 그 다음의 문장이다.
 ④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가 있다.
 ⑤ 이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진다.
 ⑥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
 ⑦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온다.
 ⑧ 내려온 공기는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간다.
 ⑥~⑧의 상황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의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여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이 분석이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운다.
 - ②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 ①과 ②는 결국 '온돌 난방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가)는 이 차이를 보여준 것을 골라야 한다.

이 둘의 차이는 '온돌에 의해 따뜻해진 공기'이고, 이 공기가 식으면 다시 내려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식 난방 방식은 아래의 공기가 계속 차가워진 상태이다.

이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바닥 바로 위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닥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져야 전체적으로 따뜻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은 '상체와 위쪽 공기'만 데우기 때문에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해당 문제는 '온돌 방식'과 '서양식 난방 방식'의 가장 큰 차이를 고르라는 의도에서 낸 것이고, 이는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데워지지 않는다는 것, 즉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골라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 해당 선지에서 봐야 하는 것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인데,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라고 선지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에서도 확인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 ③ 대류 현상은 서양식의 난방 방식에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류 현상'은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에도 발견이 되는데, 무조건 이 방식이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맨 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에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호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그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캬(Château d'Yquem)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 ①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 ②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 ③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 ④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 ④ [출제영역] [독서] > 인문 > 조건 추론

[해설]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것은 지문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라는 내용 때문에 헛갈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백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내용과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고급 백포도주'는 '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조건을 정리할 때, 범주가 확인되어야 한다.

① 고급 적포도주 - 품질이 개선된다.
 ② 대부분의 백포도주, 중급 이하 적포도주 - 품질이 떨어진다.
 ③ 추론: 그렇다면, '고급 백포도주'는 품질이 개선되는 조건에 없으며, '대부분의 백포도주'와 유사할 것이라 보므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더운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고급 포도주의 주요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선지 조건의 '모두'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로(=그 대신~만 들 수 있다)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②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북방 한계선인데, 이 말은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③ 1문단의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는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더운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고급 포도주의 주요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선지 조건의 '모두'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로(=그 대신~만 들 수 있다)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②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북방 한계선인데, 이 말은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③ 1문단의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는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오늘부터 단기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

단기합격팀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강세진

영어 진가영

한국사 박기훈

행정학 김재준

행정법 김정일

일반행정 단기합격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00~13:00)	영어(진가영)	국어(강세진)	행정법(김정일)	국어(강세진)	영어(진가영)	전 과목 주간복습테스트 (11:00~13:00)
오후 (14:00~17:00)	행정학(김재준)	행정학(김재준)	행정법(김정일)		한국사(박기훈)	한국사(박기훈)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영어 기출문제 및 해설(6)

| 김세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Judaism, we’re largely defined by our actions,” says Lisa Grushcow, the senior rabbi at Temple Emanu-El-Beth Sholom in Montreal. “You can’t really be an armchair do-gooder.” This concept relates to the Jewish notion of tikkun olam, which translates as “to repair the world.” Our job as human beings, she says, “is to mend what’s been broken. It’s incumbent on us to not only take care of ourselves and each other but also to build a better world around us.” This philosophy conceptualizes goodness as something based in service. Instead of asking “Am I a good person?” you may want to ask “What good do I do in the world?” Grushcow’s temple puts these beliefs into action inside and outside their community. For instance, they sponsored two refugee families from Vietnam to come to Canada in the 1970s.

- ① We should work to heal the world.
- ② Community should function as a shelter.
- ③ We should conceptualize goodness as beliefs.
- ④ Temples shoul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정답] ①

[해설]

주어진 지문은 tikkun olam이라는 유대인 개념 “세상을 고치기”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해석]

“유대교에서,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정의 내려진다.”라고 Montreal의 Emanu-El-Beth Sholom사원의 수석 랍비인 Lisa Grushcow가 말한다. “당신은 정말 탁상공론적인 공상적 박애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이 개념은 “세상을 고치기”로 번역되는 tikkun olam이라는 유대인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일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은 선을 봉사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개념화한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내가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을 할까?”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Grushcow의 사원은 이러한 믿음을 그들의 공동체 내부와 외부에서 행동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 그들은 1970년대에 캐나다로 오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두 난민 가족을 후원했다.

- ② 공동체는 안식처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우리는 선을 믿음으로 개념화해야 한다.
- ④ 사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어휘]

senior rabbi 수석 랍비	*rabbi 유대교의 율법교사에 대한 경칭	
armchair ① 안락의자	② 탁상공론적의	do-gooder 공상적 박애주의자(개혁가)
concept 개념	relate to ~와 관련이 있다	notion 개념
translate 번역하다, 해석하다	repair 고치다(=mend)	human being 인간
incumbent ① 재직(재임) 중인 ②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take care of ~을 돌보다	temple 사원
conceptualize 개념화하다	goodness 선	
belief 믿음	put A into action A를 행동으로 옮기다	
sponsor 후원하다	refugee 난민	heal 치료하다
function 기능하다	shelter 안식처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19.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cient philosophers and spiritual teachers understood the need to balance the positive with the negative, optimism with pessimism, a striving for success and security with an openness to failure and uncertainty. The Stoics recommended “the premeditation of evils,” or deliberately visualizing the worst-case scenario. This tends to reduce anxiety about the future: when you soberly picture how badly things could go in reality, you usually conclude that you could cope. (A), they noted, imagining that you might lose the relationships and possessions you currently enjoy increases your gratitude for having them now. Positive thinking, (B), always leans into the future, ignoring present pleasures.

- | | | | |
|----------------|-------------|---------------|---------------|
| (A) | (B) | (A) | (B) |
| ① Nevertheless | in addition | ② Furthermore | for example |
| ③ Besides | by contrast | ④ However | in conclusion |

[정답] ③

[해설]

(A) 앞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개념)고 했고 (A) 뒤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어난다(⊕개념)고 했으므로 논리의 방향이 같다. 따라서 (A)에는 Besides (게다가)가 필요하고 (B) 뒤에 긍정적인 생각이 현재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미래에 기대다(⊖)고 했으므로 (B) 앞에 나온 내용과는 반대/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B)에는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가 필요하다.

[해석]

고대 철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성공과 안전을 위한 노력, 실패와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이해했다. 스토아학파는 “악을 미리 생각하기”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당신의 현실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신은 대체로 대처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A)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관계와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했다. (B) 이와는 대조적으로, 긍정적 사고는 항상 현재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미래에 기대다.

[어휘]

ancient 고대의	spiritual 영적인, 정신의	balance A with B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
optimism 낙관주의	pessimism 비관주의	striving 노력 *strive 노력하다, 애쓰다
security 안전, 안보	openness 개방	failure 실패
uncertainty 불확실성	Stoics 스토아학파	premeditation 미리 생각(명상) 하기
* meditation 명상, 묵상	evil 악, 악마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visualize 시각화하다	worst-case 최악의	scenario 시나리오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anxiety 걱정, 불안	soberly 진지하게, 냉정하게
cope 대처하다	note ① 주목하다 ② 언급하다	possession 소유물, 재산
currently 현재	gratitude 감사(함)	lean 기대다
ignore 무시하다	pleasure 즐거움, 기쁨	

20.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d working offers more than financial security.

Why do workaholics enjoy their jobs so much? Mostly because working offers some important advantages. (①) It provides people with paychecks — a way to earn a living. (②) It provides people with self-confidence; they have a feeling of satisfaction when they’ve produced a challenging piece of work and are able to say, “I made that”. (③) Psychologists claim that work also gives people an identity; they work so that they can get a sense of self and individualism. (④) In addition, most jobs provide people with a socially acceptable way to meet others. It could be said that working is a positive addiction; maybe workaholics are compulsive about their work, but their addiction seems to be a safe — even an advantageous — one.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일이 주는 몇 가지 장점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나열의 공간개념을 이용해야 한다. ①에 일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인 봉급지급이 언급되어 있고 ②에 두 번째 장점인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이 나열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해석]

왜 일 중독자들은 그들의 일을 그렇게나 즐기는 것인가? 주로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봉급을 지급한다. 그리고 일은 재정적인 안정 그 이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할만한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내가 해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만족감을 느낀다. 심리학자들은 일은 또한 사람에게 정체성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아와 개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일이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일 중독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강박적일 수 있지만, 그 중독은 안전하고 심지어 이로우 보인다.

[어휘]

financial 재정적인, 재정상의	security 안전, 안보	workaholic 일 중독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한다	paycheck 봉급	self-confidence 자신감
challenging 도전적인	psychologist 심리학자	claim 주장하다
identity 정체성	self 자아	individualism 개성
addiction 중독	compulsive 강박적인, 충동적인	advantageous 이로운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2022년, 당신을 합격 TOP STAR로 만들어줄 해결사!

TOP STAR팀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박혜선

영어 김세현

한국사 노범석

행정학 조은종

행정법 유대웅

일반행정 탑스타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2:50)	영어(김세현)	영어(김세현)(2) /국어(박혜선)(2)	국어(박혜선)	한국사(노범석)	한국사(노범석) (2) /행정학(조은종) (2)	행정학(조은종)
오후 (14:00~17:50)			행정법(유대웅)	행정법(유대웅)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A형) 기출문제 및 해설(2)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을 견제하고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는 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 ② 고려에 동북 9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③ 다루가치를 배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 ④ 쌍성총관부를 두어 철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4. 고려의 대외 관계(거란)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는 거란이다. 고려 태조 때부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①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려가 송과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 왔다(거란의 2차 침입).

- 오답분석 :**
- ②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 ③ 몽골(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루가치는 몽골어로 원나라의 총독·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주로 감찰관으로 파견되었으며, 내정 간섭 및 공물 징수를 감독하였다.
 - ④ 고려 고종 때 몽골(원)은 회주(영흥)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05.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신(임명장)은 5품 이하일 때는 (가)과와 사간원의 서경(審經)을 고려하여 발급한다.
○ (가)는 은 시정(時政)을 논하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 『경국대전』 -

- ① 사헌부 ② 교서관
- ③ 승문원 ④ 승정원

5. 사헌부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는 사헌부이다. ① 조선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 사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헌부는 모든 관리의 부정과 비행을 감찰하며 탄핵하고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오답분석 :**
- ② 교서관은 도서의 인쇄·반포 및 각종 제사 때 축문을 쓰기도 했던 관청이다.
 - ③ 승문원은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 ④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0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술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술(道術)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엇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 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 『삼국사기』 -

- ①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②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 ③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 ④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하였다.

6. 연개소문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연개소문이 보장왕에게 도교 장려를 건의한 내용으로, 밑줄 친 '그'는 연개소문을 일컫는다. ②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연개소문은 이 성곽 축조를 감독하면서 요동 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 오답분석 :**
- ① 신라 진덕여왕 때 김춘추의 활약으로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 ③ 고구려 장수인 을지문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장수왕의 업적이다

0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이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다 5계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써 임금 을 섬기는 것, 둘째는 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것, 셋째는 신의로써 벗을 사귀는 것,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하였다.
- ② 화염 사상을 연구하여 『화염일승법계도』를 작성하였다.
- ③ 왕에게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 ④ 인도를 여행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7. 원광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가) 인물은 신라의 승려인 원광이다. ③ 신라 진평왕 때 원광에게 '걸사표'를 짓게 하여 수나라에게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다.

- 오답분석 :**
- ①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의 논리를 펼쳤다.
 - ② 의상은 '화염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염 사상의 요지를 간결하게 축약하였다.
 - ④ 해초에 대한 설명이다.

08. (가), (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은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상공업 육성 등을 역설하였다. 한편, (나)는 은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 | | | |
|---|-----|-----|
| | (가) | (나) |
| ① | 박지원 | 한치윤 |
| ② | 박지원 | 안정복 |
| ③ | 박제가 | 한치윤 |
| ④ | 박제가 | 안정복 |

8.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답 : ③

- ③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한치윤은 500여 종의 다양한 외국 자료(중국, 일본 등)를 인용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하였다.

09.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다)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라) 이자겸이 최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 ① (가)→(나)→(라)→(다)
- ② (가)→(다)→(나)→(라)
- ③ (라)→(가)→(나)→(다)
- ④ (라)→(가)→(다)→(나)

9. 무신 정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 정답 : ③

- (라) 인종 때인 1126년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 (가) 1170년 무신정변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의종 때인 1170년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많은 문신을 살해하였다.
- (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것은 명종 때인 1196년의 일이다.
- (다) 몽골의 5차 침입 때인 1253년 김윤후는 천민들과 함께 몽골의 침입에 맞서 충주성을 지켜냈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노량진 실강+지정숙소(1인1실)+빡센 관리

7월반 모집중! 상담 후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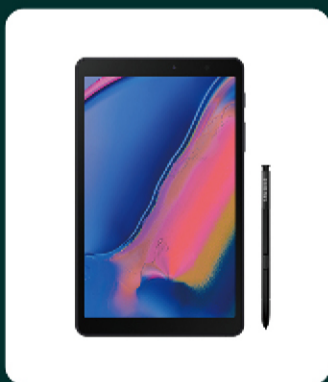
합격이 있는 차원이 다른 관리반!

2020년 9급 6개월만에
2관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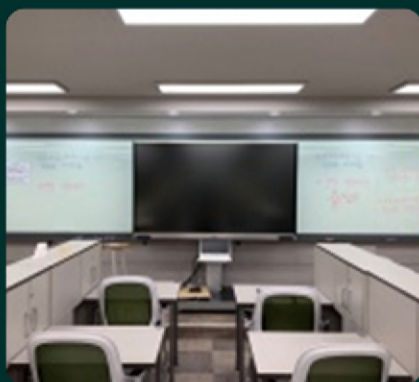


- 김○수 / 2관왕 2020 강원도 일행직 최종합격 / 2020 국가직 교정직
- 김○희 / 2관왕 2020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 2020 지방직 교육행정직
- 최○진 / 2관왕 2020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 2020 지방직 일반행정직
- 이○진 / 2관왕 2020 국가직 교정직 / 2020 지방직 일반행정직

**외
최종합격
다수 배출!**



갤럭시탭 **전원제공**



전용 자습실



1인 1실



지정식당

TALK 카카오톡 에서 **박문각 스파르타** 채널을 검색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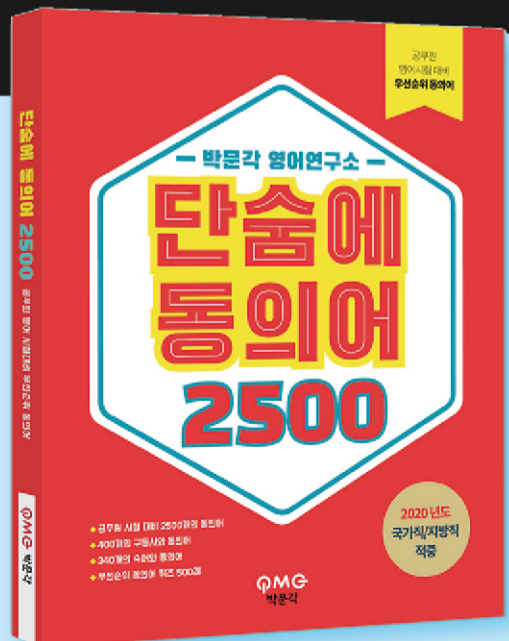
차곡차곡 정리하는 「한자성어」

한자성어		뜻
노심초사 勞心焦思	일할 로(노)/마음 심 탈 초/생각 사	몹시 마음을 졸이는 것.
수수방관 袖手傍觀	소매 수/손 수 곁 방/볼 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당하여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을 말함
요령부득 要領不得	요간할 요/거느릴 령(영) 아닐 부/얻을 득	요령을 잡을 수가 없음
자포자기 自暴自棄	스스로 자/사나울 포 스스로 자/버릴 기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아니함
이심전심 以心傳心	써 이/마음 심 전할 전/마음 심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여 앎
권토중래 捲土重來	거들 권/흙 토 무거울 중/올 래(내)	① 한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②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	따뜻할 온/연고 고 말 이을 이/알 지/새 신	옛 것을 익히어 새것을 앎
순망치한 唇亡齒寒	입술 순/망할 망 이 치/찰 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서로 돕던 이가 망하면 다른 한쪽도 위험하다는 뜻
환부작신 換腐作新	바꿀 환/썩을 부 지을 작/새 신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들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둑 적/돌이킬 반 멜 하/지팡이 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
견강부회 牽強附會	이끌 견/강할 강 붙을 부/모일 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
부화뇌동 附和雷同	붙을 부/화할 화 우레 뇌(뢰)/한가지 동	제 주견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그저 무턱대고 따라함
경거망동 輕舉妄動	가벼울 경/들 거 망령될 망/움직일 동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군웅할거 群雄割據	무리 군/수컷 웅 벨 할/근거 거	많은 영웅들이 각지에 자리 잡고 서로 세력을 다툼

‘SPEED’ 영단어 암기(108)

- 669. **sympathize**
: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pity, console, comfort, compassionate)
▷ She **sympathizes** with people who are in pain.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긴다.)
- 670. **bruise**
: 멍, 타박상, 타박상을 입(히)다(=hurt, injure)
▷ I have a **bruise** on my leg.
(나는 다리에 멍이 생겼다.)
▷ My body was badly **bruised** in the accident.
(사고로 나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 671. **urgent**
: 긴급한(=imperative, vital, crucial, critical)
▷ It is an **urgent** matter, so please reply as soon as possible.
(긴급 사항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672. **hostility**
: 적의, 반감(=hatred, malice, enmity, antipathy)
▷ They showed signs of **hostility**.
(그들은 반감을 살짝 드러냈다.)
- 673. **absurd**
: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불합리한(=exorbitant, extravagant, outrageous, preposterous)
▷ Killing animals by all means is **absurd** and cruel.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
▷ That uniform makes the guards look **absurd**.
(저 제복 때문에 경비원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 674. **declare**
: 선언하다, 세관 신고하다(=make known, proclaim)
▷ The contract was **declared** void.
(그 계약은 무효로 선언되었다.)
▷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declare** at customs?
(세관에 더 신고하실 물건 있으세요?)
- 675. **enhance**
: 높이다, 증진시키다, 향상시키다(=improve, heighten, hike, elevate, lift, boost, raise, exalt, level up)
▷ The effective use of management concepts can help a company **enhance** its brand value.
(경영 개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문각 공무원



단숨에 동의어 2500



30일 공무원 영어 어휘 마스터!

지금 박문각 북스파(www.bookspa.co.kr)에서 단숨에 동의어 2500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HUMAN 사회복지학 이론강의

8월 7일(토) 개강

토일 14:00~19:00(9주 완성)

교 재 | 2022 어대훈 HUMAN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대비 기본서 1과목/2과목/ 3과목(총 3권) (미래가치)

강의내용 | - 각 과목(영역)별 이론강의
- 휴먼장학생 OX모의고사 8회 실시(총 800문제)
→복습상태점검 & 실력향상 → 휴먼장학생(실강) 혜택

HUMAN강의 20년 기념 할인이벤트!

실강패키지& 이론강의단과

HUMAN 사회복지사 1급 패키지 IV
[이론+핵심+문풀+최종]
300,000원+150,000원+180,000원+70,000원
수강료 700,000원 **560,000원**(14만원 할인)

HUMAN 사회복지사1급 대비 사회복지학 이론강의
수강료 **300,000원**

성적 우수자 휴먼장학금 지속적 지급(실강)

모의고사 평균 점수 *2021년 4월까지 860명에게 26,710,000원이 지급됨

80.0~84.9	30,000원	+		+	
85.0~89.9	50,000원				
90.0~94.9	70,000원				
95.0 이상	100,000원				

휴먼상장 수여 쌤과 저녁식사

Human 선생님의 깨알 선물

- 1) 휴먼 NEW 동기부여노트 4) 휴먼 3색 볼펜
- 2) 휴먼 L홀더 2개 5) 휴먼 컴퓨터용 사인펜
- 3) 휴먼 포스트잇 세트 *실강은 매 강좌마다 지급/인강은 별도 안내

HUMAN강의 20년 기념 BIG이벤트

수강생 분들께 드리는 어 쌤의 Special 선물~!



Human 마스크(KF94)



Human 에코백



Human 보틀



사회복지사 1급:학습플래너
(온라인 휴먼머스, 오프라인 패키지 수강생 등)

HUMAN 사회복지사 1급 패키지 신청자 선착순 지급!

*선착순 진행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상기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천지현 The콕 국어**

비문학 독해와 독해형 문학

천지현 넷클래스
생각의 기술

Feat. **박문각 NETclass** **LIVE**

*온라인 라이브 강의 동시 시청가능

7월 26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1

8월 02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2

8월 09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3

8월 16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4

8월 23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5

8월 30일 **월** 19:30 ~ 20:30 생각의 기술6



N | 박문각 넷클래스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난 네가 합격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극강의 외인구단팀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천지현

영어 이영신

한국사 남택범

행정학 최욱진

행정법 김정일

일반행정 극강의 외인구단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00~13:00)	국어(천지현)	국어(천지현)	행정법(김정일)	한국사(남택범)	영어(이영신)	
오후 (14:00~17:00)	한국사(남택범)	영어(이영신)	행정법(김정일)	행정학(최욱진)	행정학(최욱진)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6)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9. 정책실행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 ① 검사요인
- ② 선발요인
- ③ 상실요인
- ④ 역사요인

[정답] ①

[해설]

설문은 검사요인(측정요소)에 대한 것이다. 검사요인은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시험)이 실험실시 이후 실험집단의 측정 점수에 영향을 미쳐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를 말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353

[핵심체크]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선발요인 (선정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할 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중 외재적 요소)
역사적 요소 (사건효과)	실험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성숙효과 (성장효과)	평가에 동원된 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상실요소 (이탈효과)	실험대상자들이 연구기간 동안에 이사·전보 등으로 이탈하여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회귀인공요소 (통계적 회귀)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경우 이들이 실험 진행 동안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측정요소 (검사요소)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이 실험실시 이후 실험집단의 측정점수에 영향을 미쳐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오염효과 (모방효과)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정책집행 전과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가 달라져 실험결과가 왜곡되는 것
기타	선정과 역사적 사건의 상호작용,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처지와 상실의 상호작용 등

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 ②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 ③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 ④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④

[해설]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형태에서는 의회에서 선임되는 시지배인에게 모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기관구성 형태로 시지배인(manager)이 실제적인 행정의 총책임자가 되며, 시장은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핵심체크]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형

- ① 의회에서 선임되는 시지배인에게 모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기관구성 형태로서 시지배인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책임지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부 서장에 대한 임명·파면 등의 인사권을 지니는 실제적인 행정이 총책임자가 된다.
- ② 의회-시지배인형 기관구성에서 시장은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들 가운데 선출(윤번제로 운영되거나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의원)되며, 어떤 경우든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시장은 누구를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인사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한 시지배인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

이명훈 행정학
기본입문

개강일 : 2021/07/16

시 간 : [금] 14:00~18:00

[토] 09:00~13:00 [1,3주 격주수업]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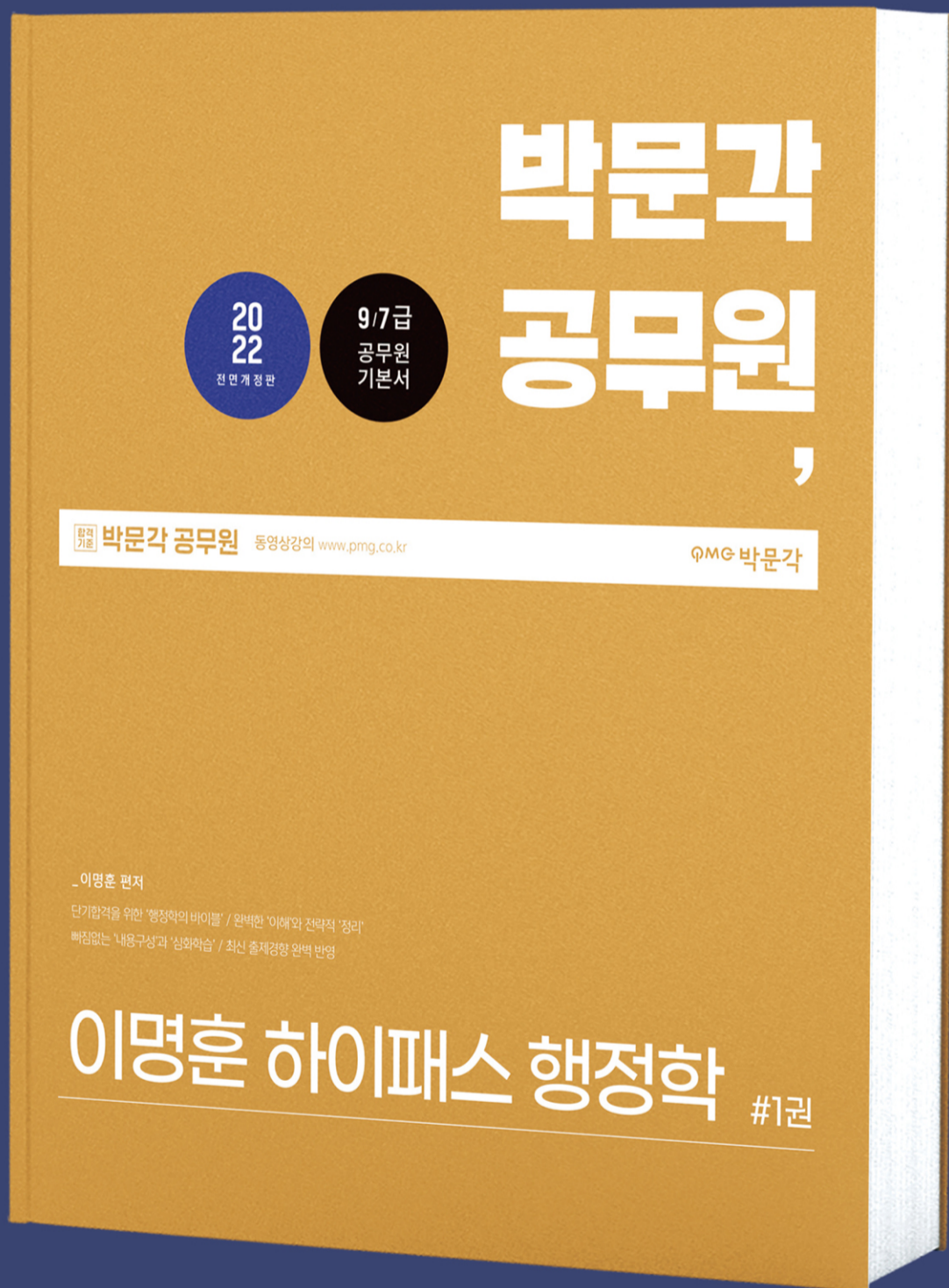


박문각 공무원

2022 전면개정판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합격,
박문각
공무원



이명훈 편저
42,000원(1·2권 포함)

단기합격을 위한
'행정학의 바이블'

완벽한 **'이해'**와
전략적 **'정리'**

빠짐없는
내용 구성과 심화학습

최신 출제경향
완벽 반영

박문각 편입

박문각편입 강남 단과학원

강남 대표1타 교수진 단과 입성 기념

특별청강 이벤트

문의 박문각편입 단과학원 02)6466-7416 위치 강남구 역삼로 1길 18 4층(강남역 신분당선 4번출구 / 2호선 2번출구)

청강참석시, 친구동행시, 타학학원에서 환승시 **50% 할인혜택!**

- ✓ 매주 효율적인 문제풀이
- ✓ 최강 교수진의 상세한 해설강의로 영역별 문제점 보완
- ✓ 개별 채점을 통한 실력 점검 및 학습계획 수립
- ✓ 개별 학습코칭으로 성적 및 학습관리



특별청강 참석자 전원 혜택!



2019 기출문제집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박문각편입 단과 학원과 함께 하세요!

강남 본관 02)508-4551

강남 단과 02)6466-7416

박문각 공무원

2021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핵심내용 정리 특강

김재준 행정학

5주
완성

- ✓ 7급 시험 전 마무리 강의 수강생
- ✓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 집중 공략

시험 전 행정학 골치거리 사이다 해소!

- 1회차** 총론 및 정책
- 2회차** 조직 및 인사
- 3회차** 재무 및 지방자치
- 4회차** 동형모의고사 1회
- 5회차** 동형모의고사 2회



8월 3일 화요일 개강 넷클래스 문제풀이 무료강의 **교재** 프린트

매주 **화** **18:30~19:30**

N | 박문각 넷클래스

*온라인 라이브 강의 동시 시청가능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2021년 지방직 9급」 회계학(A형) 기출문제 해설(2)

| **신은미**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7. 다음 설비자산 자료를 이용한 20x2년 재평가잉여금 기말 잔액은? (단, 설비자산은 취득시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 20x1년 1월 1일에 설비자산을 ₩30,000에 취득(정액법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000)
- 20x2년 1월 1일에 등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7,500)
- 공정가치: 20x1년 말 ₩37,500, 20x2년 말 ₩25,000

- ① ₩ 0 ② ₩ 500
- ③ ₩ 9,500 ④ ₩ 10,000

[정답] ③

[해설]

20x1.1.1	(차) 설비자산	30,000	(대) 현금	30,000
20x1.12.31	(차) 감가상각비	2,5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500	(대) 재평가잉여금	10,000
	설비자산	7,500		
20x2.12.31	(차) 감가상각비	12,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	(대) 설비자산	12,500
	재평가잉여금	500		

→ 재평가잉여금 잔액 = ₩10,000 - ₩500 = ₩9,500

08. (주)한국은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국이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장부상 자료

구분	20x1년 말	20x2년 말
매출채권	₩ 900,000	₩ 1,000,000
대손충당금	₩ 9,000	?

○ 20x2년 중 매출채권 대손 및 회수 거래

- 1월 10일: (주)대한의 매출채권 ₩5,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3월 10일: (주)민국의 매출채권 ₩2,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6월 10일: 1월 10일에 대손처리되었던 (주)대한의 매출 채권 ₩ 1,500 회수

- ① ₩ 1,000 ② ₩ 6,500
- ③ ₩ 8,000 ④ ₩ 10,000

[정답] ②

[해설]

손실충당금			
손상확정	₩ 7,000	기초손실충당금	₩ 9,000
		회수액	1,500
기말손실충당금	10,000	손상차손	?

→ 손상차손 = ₩6,500

09.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회계기간 중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에정배부액과 회계기말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의 차이로 발생한다.
- ②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의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 ③ 제조간접원가 배부시 실제배부율은 사후적으로 계산되지만, 예정배부율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
- ④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을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②

[해설]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의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10.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영업레버리지도는? (단,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는 없다)

- 매출액: ₩ 1,000,000
- 공헌이익률: 30%
- 고정원가: ₩ 180,000

- ① 0.4 ② 0.6
- ③ 2.0 ④ 2

[정답] ④

●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300,000 ÷ ₩120,000 = 2.5

11.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상증자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 ② 주식배당은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 ③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 ④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12. (주)한국은 20x1년 중에 (주)민국의 지분상품을 ₩8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분류하였다. 이 지분상품의 20x1년 말, 20x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70,000, ₩110,000이다. (주)한국이 20x3년에 이 지분상품을 ₩ 90,000에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단, 거래원가는 없다)

- ① ₩ 0 ② 처분손실 ₩ 10,000
- ③ 처분이익 ₩ 10,000 ④ 처분손실 ₩ 20,000

[정답] ①

[해설]

지분상품을 취득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분류하는 경우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없다.

13.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은? (단, 기초제품재고와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 당기 제품생산량: 50,000개
- 당기 제품판매량: 50,000개
- 변동매출원가: ₩ 900,000

- ① ₩ 600,000 ② ₩ 700,000
- ③ ₩ 800,000 ④ ₩ 900,000

[정답] ④

[해설]

당기 제품생산량이 모두 판매되었으므로 변동매출원가와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은 일치한다.

14. 지방자치단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④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 16조 3항)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

박문각북스파

박문각 북스파 도서할인쿠폰 지급 이벤트

모두 다 드림 이벤트가 돌아 왔습니다.

북스파에서 도서 구매 하고
추가 할인 쿠폰도 받아주세요~!



Event 01 박문각북스파에서 1권이라도 구매 시 추가 도서할인쿠폰 100% 지급합니다.

도서할인쿠폰

COUPON

100% 지급

Event 02 이벤트 기간동안 구매 금액 합산별로 추가 도서할인쿠폰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p>30,000원 미만</p> <p>PMG 도서할인쿠폰 1,000원</p>	<p>30,000원 이상~ 60,000원 미만</p> <p>PMG 도서할인쿠폰 2,000원</p>	<p>6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p> <p>PMG 도서할인쿠폰 3,000원</p>	<p>100,000원 이상</p> <p>PMG 도서할인쿠폰 4,000원</p>
--	--	---	---

바로 듣고, 풀고, 질문

박문각 ▶



▶ (10) 00:00 2022 공무원 합격, 박문각

하는 라이브 실전 특강

NET class



NET 클래스로 완성됩니다!

1:00:00



문의 02-6466-7366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 행정법(A형) 기출문제 및 해설(4)

| 김태성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②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O) 토지나 건물 등의 인도나 명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타인에 의해 행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0.23, 97누157).
- ② (X)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1993.11.9. 93누14271).
- ③ (O)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④ (O)

행정대집행법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 ③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 ① (O)
-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O)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10.9.9, 2008다7795).
- ③ (X)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302).
- ④ (O)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9.8. 2011다34521).

16.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 ②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③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① (O) ③ (O)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X)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결 1992.2.13, 91두47).
- ④ (O)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결 2008.5.6. 2007무147)

1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해설]

- ① (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6.28, 90누6521).
- ② (X)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정재결은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사정재결)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O)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O)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1. 8. 93누21927).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단기합격 드림팀, 1타 부심 다이아몬드-리마스터

다이아몬드팀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전선혜

영어 헤더진

한국사 선우빈

행정학 이명훈

행정법 김태성

일반행정 다이아몬드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2:50)	영어(헤더진)	영어(헤더진)(2) /국어(전선혜)(2)	국어(전선혜)	한국사(선우빈)	한국사(선우빈) (2)	(홀) 행정학(이명훈) (짝) 행정법(김태성)
오후 (14:00~17:50)		행정법(김태성)			행정학(이명훈)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교육학개론(A형) 기출문제 해설(3)

| 오현준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볼 때, (가)에 들어갈 말은?

(가)은/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난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① 성취기준 ② 성취수준
- ③ 평가기준 ④ 평가요소

[정답] ①

[해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성취평가제에 의한 평가를 중시한다. 성취평가제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성취수준(achievement level)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은 교수·학습의 목표, 즉 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를 말하며, 성취수준(achievement level)은 교수·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각 해당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말한다. 이처럼, 평가에 있어서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개화기에 설립된 우리나라 관립 신식학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문학 ㄴ. 육영공원 ㄷ. 연무공원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개화기에 설립된 관립 신식학교는 동문학(1883), 육영공원(1886), 광혜원(1885), 연무공원(1887), 경학원(1887) 등이 있다. 동문학(同文學, 1883)은 뮐렌도르프(P. G. Möllendorf)가 설립한 최초의 외국어 학교로 영어 통역관 양성이 목적이다. 육영공원(育英公院)은 외교교섭에 필요한 영어 교수를 목적으로 1886년 설립한 관리 양성 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무공원(鍊武公院)은 1887년 군비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군사교육기관으로 군관(초급 장교) 양성이 목적이다.

11.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 ② 반권위주의를 표방한다.
- ③ 반연대의식을 표방한다.
- ④ 반정초주의를 표방한다.

[정답] ③

[해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서양의 근대적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근대사회의 구조와 체제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사상적 경향을 말한다. 계몽사상적 이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과학이나 언어, 예술,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근거, 즉 궁극적 법칙이나 구조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 찾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부하고, 나아가 보편적 이론이나 사상의 거대한 체제의 해체를 주장한다. ③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식(Solidarity)을 중시한다.

[Tip] |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징
 ① 반합리주의(2원론적 경계의 해체): 이성적·주체적 자아는 허구적 자아 → 우연적·분열적·타율적·모순적 자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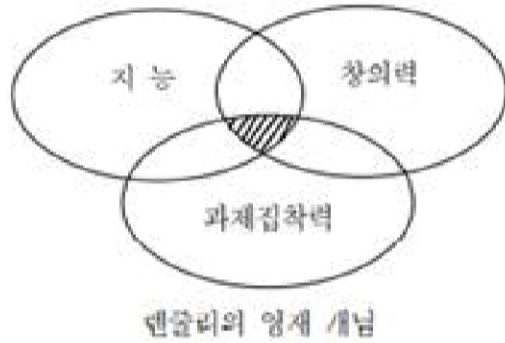
- ② 상대적 인식론(반정초주의): 진리의 객관성·보편타당성·소여성(所與性) 부정 → 진리의 가치부하설, 우연성, 상호 비교 불가능설, 다원성과 해체설 강조
- ③ 반권위주의, 반전통주의: 민주적 방법 중시
- ④ 탈정형화·탈정전화를 추구하는 문화다원주의
- ⑤ 대중들의 유희적 행복감을 향유하는 문화
- ⑥ 주체적 자아가 해체되는 문화 중시: 열린 자아인 추구
- ⑦ 절대적 진리보다 국지적 진리 옹호, 지식의 조화성 강조
- ⑧ 대서사(거대 담론)보다 소서사(작은 이야기) 중시

12. 렌줄리(Renzulli)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높은 도덕성
- ② 높은 창의성
- ③ 높은 과제집착력
- ④ 평균 이상의 능력

[정답] ①

[해설]



렌줄리(J. Renzulli)는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지능(일반정신능력), 높은 창의력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과제집착력과 같은 정서적 요소의 교집합으로 정의하였다.

13.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강화보다 벌이 더 효과적이다.
- 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 ㄷ. 선호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강화(reinforcement)는 특정 행동의 반응확률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벌(punishment)은 반응확률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정적(正的)은 그 방법이 쾌자극이나 불쾌자극을 제시하는 것을 부정(負的)은 그 방법이 쾌자극이나 불쾌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ㄱ은 강화가 더 효과적이며, ㄴ은 부정 강화에 해당하고, ㄷ은 정적 강화에 해당한다.

[Tip] | 강화, 벌, 소거의 개념 비교

절차	목표	목표행동	자극의 성질	자극제시 방법
정적 강화	행동의 증가	바람직한 행동	유쾌자극	행동 후 제시
부정 강화	행동의 증가	바람직한 행동	불쾌자극	행동 후 제거
정적 벌	행동의 감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불쾌자극	행동 후 제시
부정 벌	행동의 감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쾌자극	행동 후 제거
소거	행동의 감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쾌자극	행동 후 유보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노무사


2022년 노무사 시험대비 노무사 올패스 OPEN

2022년 노무사 시험 합격은 박문각이 정답인 이유!

올패스만의 파격적인 수강 혜택!




2022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2차 모의고사 강의
온라인 첨삭



2022 대비 강의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선행학습을 위한
2021 강의 제공



교재 구매 지원
최대 20만원

최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차 과정	기본이론(선행)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2차 과정			GS 0기				GS 1기		GS 2기		GS 3기		

검증된 노무사 전문 강사진!



종로학원 02)734-8082 | 온라인 02)3489-9500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영어 모의고사 및 해설(3)

| 정일현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정일현 영어

- ▶ 21년 2차 대비 정일현 영어 FINAL 특강 [문법 총정리 - 찍기 특강]
- 개강 : 2021/08/06
- 시간 : [금] 09:00~13:00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millions of men left to fight in World War 1, women took over their jobs and kept national economies going. Many women worked in war industries, manufacturing weapons and supplies. Others joined women's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When food shortages threatened Britain, volunteers in the Women's Land Army went to the fields to grow their nation's food. Nurses shared the dangers of the men whose wounds they tended. At aid stations close to the front lines, nurses often worked around the clock. War work gave women a new sense of pride and confidence. They challenged the idea that women could not handle demanding and dangerous job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t was women's support for winning the war that helped them finally win the right to vote.

- ① Roles of Women in Maintaining Society
- ② How Britain Won the First World War?
- ③ Discriminations Based on Gender and Race
- ④ Women's War Effort Leading to Improved Rights

12. 【정답】 ④ ♣ 난이도 중

【해설】 독해-제목

세계대전 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글로,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여성들이 국가 경제를 유지시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 제조, 식량 공급, 부상자 치료 등의 수많은 일들을 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마침내 투표권도 획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④ '여성들의 전쟁에서의 노력이 향상된 권리로 이어지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
- ② 어떻게 영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는가?
- ③ 성과 인종에 바탕을 둔 차별

【해석】

수백만의 남성들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기 위해 떠남에 따라, 여성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이어받아 국가 경제가 계속 유지되게 했다. 많은 여성들은 무기와 보급품들을 제조하면서 전쟁 산업에서 일을 했다. 다른 여성들은 군대의 여성분과에 합류했다. 식량 부족이 영국을 위협하자, 농업 자원 부인회는 들판으로 가서 그들의 식량을 재배했다. 간호사들은 그들이 부상을 돌본 남성들의 위험을 공유했다. 전선에서 가까운 응급 치료소에서 간호사들은 흔히 24시간 내내 일했다. 전쟁 관련 일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들은 여성들은 고되고 위험한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전했다.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마침내 투표권을 쟁취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여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지원을 한 것이었다.

【어휘】

millions of 수백만의	take over 이어받다, 인수하다
manufacture 제조하다	weapon 무기
supply 공급, 보급, 보급품	branch 분과, 분파, 지부
armed forces 군대, 군	shortage 부족
threaten 위협하다	Women's Land Army 농업 지원 부인회
wound 부상, 상처	tend 돌보다
aid station 전방 응급 치료소	front line 전선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confidence 자신감
demanding 고된, 힘든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frican elephants are terrified of bees, which tend to sting them around their eyes and inside their trunks. Now British scientists have recorded a distinctive call, or "bee rumble," that the pachyderms make as they flee a buzzing swarm. To determine if the rumble actually serves as _____, researchers broadcast the recording to 10 elephant herds; six of the herds fled, even shaking their heads as if to deflect bees. "It not only provides the first demonstration that elephants use caution calls," behavioral ecologist Karen McComb of the University of Sussex tells Science Now, "but also shows that these may have very specific meanings." Researchers will now try to determine if elephants also have warning calls to alert their herd to other dangers, such as lions and humans.

- ① a greeting ② an attack
- ③ an alarm ④ a showoff

13. 【정답】 ③ ♣ 난이도 중

【해설】 독해-빈칸추론

코끼리가 소리를 내어 위험한 상황을 같은 무리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③ an alarm(경보음)이 적합하다.

- ① 인사, ② 공격, ④ 과시

【해석】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벌들은 코끼리의 눈 주변과 코 안쪽을 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영국 과학자들은 왕왕거리는 벌떼들로부터 도망갈 때, 후피 동물들이 만드는 독특한 울음소리, 혹은 "bee rumble"이라는 소리를 녹음했다. 그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경보음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들은 10개의 코끼리 무리들에게 녹음된 그 소리를 방송했다. 그 열 개의 무리들 중 여섯 무리들은 심지어 벌들을 피하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도망갔다. Sussex 대학의 행동 생태학자인 Karen McComb은 Science Now에서 "이것은 코끼리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울음소리를 사용한다는 첫 번째 입증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울음들이 매우 특정한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제 사자나 인간과 같은 다른 종류의 위험에 대해 코끼리가 또한 그들의 무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용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휘】

terrified 무서워하는, 겁이 많은	
trunk 코끼리 코, 나무의 몸통	
distinctive 독특한	
rumble 우르릉[우르릉/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다	
buzzing 붐붕[왕왕]거리는, 와글와글하는	
pachyderm 후피 동물(코끼리처럼 가죽이 두꺼운 동물)	
swarm (곤충의) 떼[무리], 벌 떼	determine 결정하다
broadcast 방송하다, 널리 알리다	deflect 방향을 바꾸다
demonstration 증거, 증명, 논증	ecologist 생태학자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superstitious beliefs are often reinforced by _____. Many people think that

things come in threes. To support that belief, they point to many instances where three bad or three good things happened over a period of time. However, evidence for such a superstition is problematic. Why? We remember the times that three things seemed to happen fairly close to one another, and forget all the times when three things didn't happen together. Once again, we remember the hits and forget the misses. Also, there's never a time horizon stated. Do the three things have to happen within a week, a month, or a year? Sooner or later, three similar things are likely to occur. We can interpret just about any data as supporting the things-come-in-three superstition - if we wait long enough. As Stuart Vyse stated, "The fallibility of human reason is the greatest single source of superstitious belief."

- ① a series of successful experiences
- ② our fear and anxiety for the future
- ③ their specific evidence we can identify
- ④ our biased interpretation of future events

14. 【정답】 ④ ♣ 난이도 중

【해설】 독해-빈칸추론

주제문 완성형 문제로 주제문인 첫 문장에 뒤따르는 내용들이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내용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는 내용은 망각해 버림으로서 자신의 미신적인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④ '미래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편향적인 해석'이다.

- ① 일련의 성공적인 경험들
- ② 미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 ③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해석】

미래의 사건에 대한 편향적인 해석들에 의해 흔히 미신이 강화된다. 무슨 일이든 삼세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쁘거나 슬픈 일이 세 번 일어난 예들을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문제가 많다. 왜일까?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이 세 번 연달아 일어난 경우는 잘 기억하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쉽게 잊어버린다.

자신의 생각과 들어맞는 경우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놓쳐 버리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일주일 안에 세 번 일어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한 달이나 1년 안에 세 번 일어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 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다리면, 삼세번이라는 미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심리학자인 Stuart Vyse의 말처럼 "인간이 지닌 이성의 취약성이야말로 미신을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원천이다."

【어휘】

superstitious 미신의	reinforce 강화하다
point to 지적하다	instance 경우
problematic 문제가 있는	time horizon 시간의 범위
interpret 해석하다, 설명하다	state 말하다, 언급하다
fallibility 오류를 범하기 쉬움	biased 편견을 지닌, 편향된
irrationality 비합리성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합격할 때! 까지
실강 인강 무제한 제공!

합격보장 현강 패스

8월 신규 런칭

현강패스

합격할때 까지
실강 / 인강/모의고사 전과목 무한 수강!



[21년 8월 ~22년 2월]
2,548,000원

경찰 스파르타

합격할 때 까지
프리미엄 자습실 무한 이용권!



[21년 8월 ~22년 2월]
3,598,000원

기숙연계 스파르타

1일 3끼 식사 / 1인1실 숙소
그룹 P.T체력학원까지 한번에 해결!



[21년 8월 ~22년 2월]
8,778,000원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형법 모의고사 및 해설(2)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오상훈 경찰 형법

- ▶ 21년 2차 대비 오상훈 형법 FINAL 특강
· 개강 : 2021/08/03
· 시간 : [화] 09:00~13:00
- ▶ 22년 1차 대비 오상훈 형사법
· 개강 : 2021/07/08
· 시간 : [목] 09:00~13:00

0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 ②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중 어느 진료방법만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③ 의사 甲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④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05. [정답] ③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① O : [약사 vs. 제약회사]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작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76.2.10, 74도2046).
- ② O : 대판 2015.6.24, 2014도11315
- ③ X : [할로테인마취사건] (수술주관 의사 또는 마취담당 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

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0.12.11, 90도694).

④ O : 대판 2014.6.26, 2009도14407 → 업무상 과실치사 X

06.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2살 때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그의 남자친구와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반항할 수 없는 잠든 틈에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 ②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③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④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06. [정답] ③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① X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범행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12.22, 92도2540).
 - ② X :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2도1329).
 - ③ O :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1985.8.28. 24:00경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타고 앉아 목을 계속 졸라 누름으로써 질식사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그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대판 1986.11.11., 86도1862).
- [판결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극히 짧은 시간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위 의사에서 비롯된 피고

인의 위와 같이 연속된 전후행위는 하나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X :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17.9.21, 2017도10866).

0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 ②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07. [정답] ①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① X : 일치설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행위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② O : 예외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파악한다.
- ③ O :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 구성요건모델)에서는 원인설정행위시에는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O :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찾는 견해(예외설, 책임모델)에서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2021 상반기 **최종 합격률 87.9%**

2021년 상반기 경찰시험남학생 33명 **100% 전원합격**, 여학생 25명 중 18명 합격!

2022년 대비

경찰

올패스

All Pass



경찰 올패스 보기



교재 구매까지 완벽 지원
최대 15만원 적립금 제공!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수강기간 동안 최종합격 시
수강료 환급!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2022년 개편과목 &
한능검·G-TELP 포함
전 강좌 무한수강



매일·매주·매월
**성적관리
모의고사**

약력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現 • 박문각경철승진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前 • 중앙대 · 울산대 출강
-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조충환



조충환 · 양건

SPA & 테마 시리즈



조충환·양건
SPA 형법 / 형사소송법
23년 전통 불멸의 베스트셀러!

최신판례 + 조문 + 이론 총망라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 / 형사소송법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로 그 객관식 문제집!

각종 기출문제 + 예상문제 총정리



양 건

약력

- 現 · 박문각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 · 교정직 집필위원
- 前 ·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경찰승진특강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2022 경찰승진 대비

조충환 · 양건 1년 패키지

2022년 승진을 위한 필수 선택!

조충환·양건 형사법 1년 패키지

SPA 형법 기본이론 + 객관식 테마 형법 문제풀이 + 상 · 하반기 최신판례&기출문제 + 전범위 온라인 모의고사 5회 무료제공	SPA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 상 · 하반기 최신판례&기출문제 + 전범위 온라인 모의고사 5회 무료제공
--	--

형사법 SPA 패키지

SPA 형법 기본이론 + 상 · 하반기 최신판례&기출문제	SPA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상 · 하반기 최신판례&기출문제
--	---

2022 승진대비 박문각경찰 승진만의 프리미엄 혜택

PC·모바일강의 무료제공	상·하반기 최신판례 + 기출문제 제공	교수학습 1:1문의 게시판	전범위 온라인 모의고사 5회분 무료제공
------------------	-------------------------	-------------------	--------------------------

상담문의

경찰 채용 · 승진 02-6466-7201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이선화 교육학 공개 모의고사(2)

| 이선화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

- (1) 자기결정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행동하고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 (2) 자기결정성 이론에서의 동기 유형(신종호 외, 2015)

동기	조절 유형	인과 소재	조정 과정	행동
무동기	무조절	자신과 무관	낮은 유능감 지각, 무관심, 무심함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	외적 조절	외재적	외재적 보상이나 처벌이 많음, 순응, 저항	비자기결정적
	투사(부과)된 조절	다소 외재적	자아-관여, 자아나 타인으로부터 인정 추구	
	동일시(확인)된 조절	다소 내재적	가치부여, 자율적인 목표설정	
	통합된 조절	내재적	목표의 위계적 통합, 조화	
내재적 동기	내적 조절	내재적	흥미, 즐거움, 과제 자체에 만족	자기결정적

(3)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욕구를 가진다고 가정함

유능성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능성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능력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자율성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 욕구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 필요할 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관계성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 사랑과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느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전달하고 학생과 학습에 대해 진정한 헌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계성 욕구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4) 자기결정성 증진 전략

- ① 학습자의 내적 자원(느낌, 생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② 학습자의 경험이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과제나 학습활동의 필요성(중요성, 유용성, 가치, 의미)을 설명해준다.
- ③ 규칙에 대해 논의하거나 문제 행동을 다룰 때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시적·통제적·압력적 언어사용을 자제한다.
- ④ 익숙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구성주의 전반]

- (1) 개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관에 근거하여 지식은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다는 관점
- (2)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의 구성은 개인의 정신적 활동에 근거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함 개인 내면의 인지적 작용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소에 관심 비고츠키의 심리발달이론에 기초함 인지적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중요

(3) 구성주의의 교육적 적용/교수설계에 대한 시사점

실제적 과제와 맥락 강조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제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어야 함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학생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의 설계가 중요
문제해결중심의 학습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제공
교사 역할 변화	보조자, 촉진자의 역할
협동학습의 강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중시
평가의 변화	과정중심의 평가, 평가와 과제의 결합 추구

[반두라의 자기주도/자기조절학습]

- ① 자기조절은 학습자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과정
- ② 사회인지학습이론에 근거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ion learning)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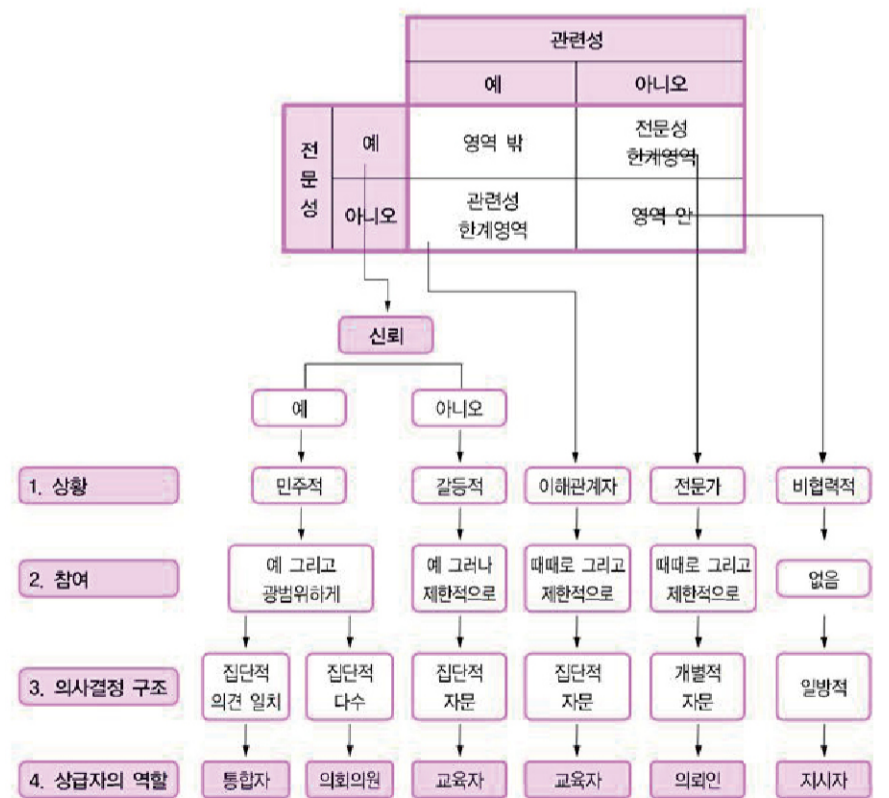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 학습자에게 행위의 방향을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과정을 평가하도록 조력함
자기관찰 (진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행동을 판단 및 평가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전략 사용, 행동, 동기 수준을 관찰해야 함 최종목표를 구성하는 하위 행동의 요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체크하며 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자기평가 (자기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동기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효과적인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관찰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메타인지 필요
자기반응 (전략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평가를 근거로 적절한 자기반응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위 다음 학습과정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

[호이와 타터의 의사결정 참여모형]

① 수용영역 판단의 기준

관련성의 검증	부하직원들이 결정된 결과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문성의 검증	부하직원들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② 참여적 의사결정의 규범적 모형(Hoy & Miskel, 2015)



③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역할	기능	목표
통합자	다양한 관점을 통합함	합의를 얻기 위해
정치가 (의원, 협의자)	개방적인 논의를 촉진함	심사숙고한 집단의 의견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깊이 사고하여 좋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자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함	결정안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 (간청자, 권유자)	조언을 구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시자(지도자)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함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박문각 임용

2022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대비

정승현 전공물리



전공물리 합격의 MASTER Key

8월 강의 안내

강좌명	강의 일시	개강-종강일
물리 교과서 실험 특강(4주)	일, 14:00~17:00	8/1(일) ~ 8/22(일)
기출/동형 문제풀이반(4주)	수, 9:00~13:00 금, 14:00~18:00	8/4(수) ~ 8/27(금)

▣ 물리 교과서 실험 특강 강의 내용

- ▶ 단원별 핵심개념 및 문제 접근법 제시, 강사만의 자세한 풀이 제공
- ▶ 시중 교과서 분석을 통한 물리 실험 문제 강의 및 문제풀이
- ▶ 실험 주제 분석표 첨부 참고

▣ 기출/동형 문제풀이반 강의 내용

- ▶ 20년간 임용기출 빈출 및 주요 기출문제 최상의 문제풀이
- ▶ 강사만의 기출 동형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
- ▶ 유형별 접근법과 문항 해석능력 + 문제풀이 Know-How 전수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상업 실전모의고사 및 해설(6)

| **전민식**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6. 다음은 박문각 상업고등학교의 신규 교사인 박 교사가 협동학습으로 수업하기 위하여 수석 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박 교사 : 학기 초에 실시했던 적성평가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들로 반이 구성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가) 지난 번에 실시했던 중간고사 결과를 보니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사이의 성적 차이가 커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이 어떤 것 있을까요. 어떤 학습유형이 좋을까요?

수석교사 : 그러면 협동학습 중 직소 II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수업하려고 하는 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박 교사 : 상업과 16명입니다.

수석교사 : 그렇군요. 4개의 모집단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박 교사 : 그런데 4개의 ㉠ 모집단으로 구성할 때, 반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집단 구성 후, 각 집단의 구성원에게 4개의 학습 주제 중 하나씩을 맡게 해서 해당되는 전문가 학습지를 배분하면 되죠?

수석교사 : 맞아요. 그리고 학습주제를 고려하여 전문가 활동을 위한 ㉡ 전문가 집단 구성 방법도 아시죠?

박 교사 :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업의 단계가 모집단 활동, 전문가 활동, (㉢), 평가로 알고 있어요.

수석교사 : 맞아요. 각 단계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 직소II 모형의 평가 방법이 직소 I 모형과는 다르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박 교사 :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학습 지도안부터 작성을 해 봐야겠어요.

수석교사 : 네, 수고하세요.

< 작성 방법 >

- 밑줄 친 ㉠의 모집단 구성 방법과 밑줄 친 ㉡의 전문가 집단 구성 방법에 대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단계를 제시할 것.
- 밑줄 친 ㉢의 평가 및 보상 방법을 서술하고, 밑줄 친 (가)의 고민과 관련하여 ㉢의 보상 방법이 갖는 장점과 그 이유를 서술할 것.
- 보상의 측면에서 직소 I 모형과 직소II 모형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정답 및 해설)

- ㉠ 반이 다양한 적성을 가지고 있고, 성적 차이가 큰 16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질적인 구성원들 4명씩 모집단을 구성한다.
- ㉡ 각 모집단에서 4개의 학습 주제 중 같은 과제를 할당받은 학생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
- ㉢ 모집단의 재소집
- ㉢ 직소II 모형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기준점수에 비해 향상된 점수를 합산하여 팀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제공한다. 집단보상으로 인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되므로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보상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직소 I 모형은 개별보상만 있다. 반면 직소II 모형에서는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이 함께 제공된다.

■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 개념

- 학습능력이 다른 학습자들로 소집단(이질집단)을 구성하여 동일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다.
- 협동을 통해 교육에서의 경쟁이 지닌 역기능을 극복하려는 수업방법이다.
- 구성원 사이의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과 개인적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 모두 강조한다.
- 집단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의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수업방법이다.

■ 전통적 소집단학습과 협동학습의 비교

전통적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동질성 ○ 개별 책무성 없음 ○ 구성원 간 긍정적 상호의존성 無 ○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한 사람이 지도력을 지님 ○ 과제만 강조 ○ 교사는 집단의 기능을 무시 ○ 집단과정 無 ○ 사회적 기능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이질성(이질집단) ○ 개별 책무성 중시 → 무임승객 효과, 봉 효과 방지 ○ 구성원 간 긍정적 상호의존성 有 ○ 상호 간의 책임 공유 ○ 구성원 간 지도력 공유 → 구성원 모두가 리더 가능 ○ 과제와 구성원과의 관계 지속성 ○ 교사의 관찰과 개입 → 교사의 적극적 개입(피드백 제공) ○ 집단과정의 구조화 ○ 사회적 기능(리더십, 의사소통기술)의 학습

■ 직소모형(jigsaw)

■ 개념

- 집단 내 동료들로부터 배우고, 또 동료들을 가르치는 모형
- :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Expert Team)으로 갈라져 학습한 후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가르치는 형태의 학습모형
- 집단 간 상호의존성과 협동성을 유발함
- 전문가 집단 활동이 있으며, 학업성취도 향상은 물론 정의적 태도(상이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함

■ 종류

종류	절차 및 특징	개발자
직소 I 모형	5~6명의 이질집단으로 소집단(모집단) 구성한 후 집단구성원 수에 맞게 학습과제를 소주제로 분할하여 할당 → 같은 과제를 맡은 학생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한 후 학습 → 모집단으로 돌아와 학습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설명 → 개별시험(퀴즈)을 보고 개별성적 처리(<u>개별보상</u>) ⇒ <u>과제해결력의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보상의 상호의존성은 낮다.</u>	애론슨 (Aronson)
직소 II 모형	<u>직소 I 모형에서 집단보상(팀 점수)을 추가한 모형</u> 집단구성원 개개인의 기준점수에 비해 향상된 점수를 합산하여 <u>팀 점수</u> 를 산정하고, ↳ (개인별 향상점수를 팀 점수에 반영) 이를 토대로 <u>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제공</u> = STAD 평가방식 도입 ⇒ <u>집단보상으로 인해 집단구성원들의 보상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u>	슬래빈 (Slavin)

박문각 임용

2022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대비

수현 전공일본어



일본어 임용합격의 Master

2021년 8~11월 강의 안내

강좌명	강의 일시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키워드 정리	토, 11:00~14:00	4주	8/7(토)~8/28(토)
심화 어학반	토, 14:30~17:00	4주	8/7(토)~8/28(토)
영역별 모고	토, 10:00~15:30	6주	9/4(토)~10/9(토)
전범위 실전 모고	토, 09:00~15:30	5주	10/16(토)~11/13(토)

- ◆ 키워드 정리 강의 소개 : 기입형 및 서술형 답안을 위해 내용 연결의 핵심 키워드를 각 영역별로 정리하여 키워드를 통한 암기를 유도하고 하반기 모의고사 강의 및 실전에 대비하게 합니다.
- ◆ 심화 어학반 강의 소개 : 음성학, 어휘론, 문자론, 문법론, 통사론 등 어학 각 세부영역의 심화된 이론을 정리하고 고득점 답안작성을 위한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 ◆ 모의고사 강의 소개 : 매주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지를 제공합니다.
- ◆ 실전모의고사는 출제 영역을 종합적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리와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실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 및 첨삭을 통해서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합니다. 모의고사 후 개인별 점수, 석차 리스트 제공합니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공인
중개사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2021대한민국소비자선호도 1위

노량진학원

7월 5일
개강



노량진 학원 프리미엄 회원만 누리는 파격혜택!

전국모의고사+인강 혜택!



전국 모의고사/합격 3종 세트/복습인강

모두 제공!

각종 학습 지원 혜택!



모의고사



사물함



자습실



1:1 학습상담

직장인 특별할인!

~~연간회원 수강료 199만원~~

54만원

노량진학원 02)812-6666 | 온라인 02)3489-9500

PMG 박문각

합격기준 박문각 공인중개사 무료 강의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 문제집 / 실전모의고사
구매시 **무료 강의 쿠폰이 제공** 됩니다.



기본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실전모의고사 강의

박문각 무료 동영상 강의 시리즈

* 무료 쿠폰강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기본이론 강의 / 문제풀이 강의 / 실전모의고사 강의 / 교수별(25인) 필수이론

공무원

9급 공무원 기출해설강의(예정) : 과목별 최근 3~5개년간 기출문제 풀이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강의(예정)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 최신 기출문제 유형 분석



- 구매 페이지 접속
- ▼
- 무료강의 선택
- ▼
- 수강키 입력
- ▼
- 수강 신청하기

*과정별 수강키는 교재 구매시 또는 박문각 제휴 스터디카페 수강 지점에서 제공됩니다.(데스크 문의)

문의전화 | 02-6466-7506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근 5년간 기출 훑어보기 - 짝수편(1)

| 편집 : 고시기획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이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0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4.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응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0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④ 토지에서 별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06.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07.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08.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0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1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 甲이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11.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박문각 공인중개사

1 위 공인 중개사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종로학원

7월 5일
개강



핵심요약반 / 단원별 모이고사반 / 문제풀이반

“합격하는 공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전 · 오후 · 야간반(2개월 완성)



실전 동형모이고사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만
 쓱~쓱 골라 실력 쓱~쓱 키우기!!

7월 5일(월) 개강!

동형모이고사반은 합격의 필수과정입니다.

홀인원! 최종 일요하루특강

최종 핵심이론을
 하루에 총정리한다!!

8월 8일(일) 개강!

거침없이 합격다지기!
 합격의 맥을 짚는 해법을 제시한다!!

합격전략 설명회

날짜	요일	시간
7월 29일	목	오후 3시

(설명회 사전예약 홈페이지 참조)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일정

8/9(월)~8/13(금)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co.kr
 학원에서 원서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2.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 ③ ㄷ ④ ㄱ, ㄴ
- ⑤ ㄴ, ㄷ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5.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목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① ㄱ ② ㄷ
-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6.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⑤
06. ①	07. ②	08. ①	09. ④	10. ③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⑤				

박문각 법무사

박문각 법무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년 연속
수석합격자
배출**

2014 ~ 2020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수석·최연소 포함
124명 중 88명
합격자 배출**

2020년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합격자 총
88명 중, 63명
온라인 강의 수강생**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2차 온라인 침삭
수강생
합격률 73.9%**

2019년 2차 올패스
온라인침삭 수강회원 기준

2022 박문각 법무사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30만 포인트 지급



쿠폰/봉투모의고사 등
혜택사항 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선정

2021 올패스 **로** **라**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합격!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과 함께라면

2021년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1년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20년 154문항 적중!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제공!



시험 직전
총 정리
LIVE특강 제공



온라인 수강 문의 02)3489-9500

박문각 감정평가사

박문각 감정평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년 연속
전체·실무 수석
합격자 배출

2017 ~ 2020 서울법학원
온·오프 수강생 기준

최종합격 시기
총 167건
업계최다

~ 2020.1.10
20줄 이상 합격시기 등록수 기준

감정평가사
브랜드 검색 수
1위

2019.1 ~ 2019.12
네이버 DataLab 브랜드 검색 기준

온·오프
수강생 수
1위

감정평가사 2차 단과·GS스터디
온·오프 수강생 기준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올패스

1차 올패스 | 2차 올패스 | 동차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20만 포인트 지급



업계 유일
온라인 첨삭 서비스



다양한 올패스
혜택사항 제공



민법
백운정 교수

NEW
민법
설신재 교수

회계학
신은미 세무사

부동산학원론
국승욱 교수

NEW
감정평가관계법규
도승하 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허광철 평가사

NEW
경제학
손병익 회계사

NEW
경제학
조경국 교수

서울법학원 02)887-9161~3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인중개사

제 32 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

1차 집중반! 핵심요약반!

업계 유일!! (1) 핵심요약과정 : 8월 2일(월) 대개강

무료청강
 민법 및 민사특별법
 8월 2일(월)
 부동산학개론
 8월 4일(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 준 교수



부동산학개론
 한동균 교수



마감 주의



1차 집중반 수강대상

- ✓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 ✓ 학원 강의와 온라인을 모두 원하는 수험생
- ✓ 32회 1차 시험이 목표인 수험생



8월 1차 집중반 대개강 개강: 8월 2일(월) 8회 과정

시간 / 요일	월	화	수	금
0교시 09:20 ~ 09:40				
수업 09:40 ~ 1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진	노 준	한동균	한동균	노 준

1차 집중반 스케줄

	6월	7월	8월	9월	10월
과정	기본이론	정규이론	핵심요약	단원별 + 종합 동형 모의고사	
교재	기본서 + 강의노트	기본서 + 강의노트	요약집	저자 특수 프린트	

1차 집중반 수강료

1개월	문풀과정(9~10월)	이론+문풀(8~10월)	+ 22년(2차)
300,000원	490,000원	690,000원	1,790,000원

*교재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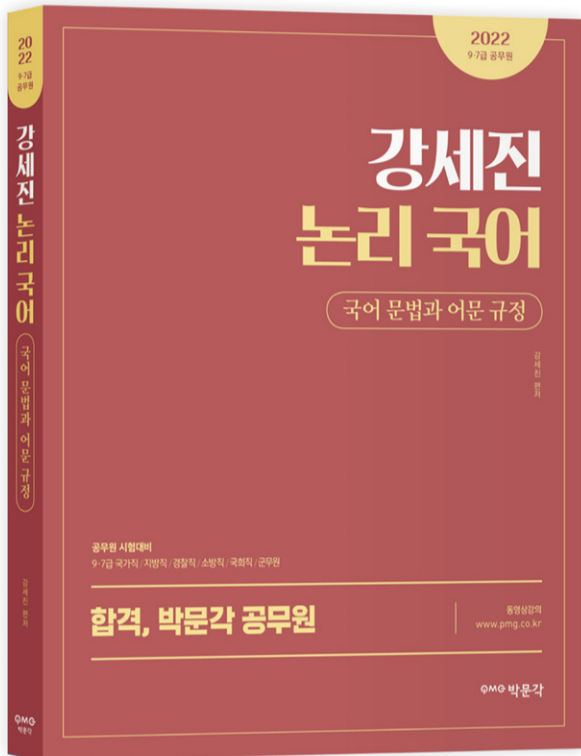
강남학원 02)3476-3670 | 온라인 02)3489-9500

합격, 박문각

BOOKs 

합격의 책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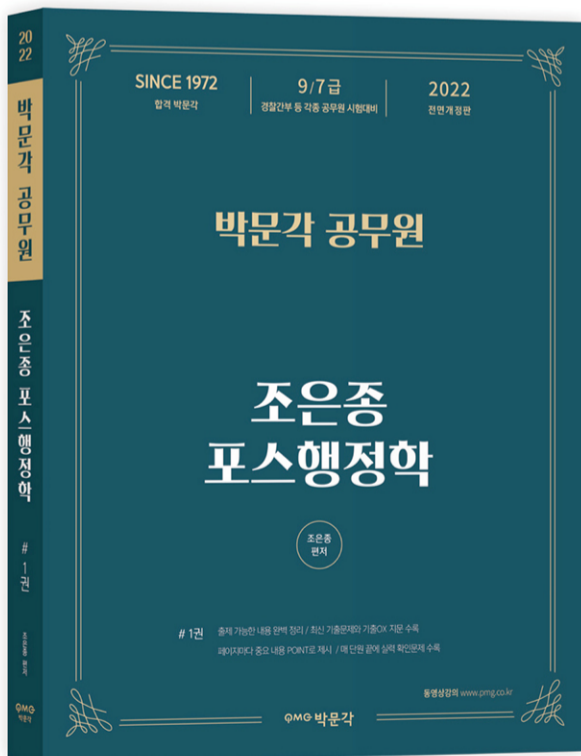
강세진 편저 / 20,000원

2022 강세진 논리 국어

국어 문법과 어문 규정

- 공무원 국어 문제 유형 완벽 분석
- 모든 문법 내용 집약하여 구성
- 연습문제, 개념정리 문제풀이, 수능형 문제 풀이 등 문제해결력 강화

GOOD



조은종 편저 / 43,000원

2022 조은종 포스행정학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 이론서 하나로 기출까지 단권화 학습 가능
- 단원 첫머리에 대표 발문과 주요 용어 제시
- '기출 Check'와 '기출OX'로 실전 감각 up!
- 단원 끝 '핵심 체크하기'로 이론 완벽 정리